

1. 전시 개요

전 시 명 프렌즈 프렌즈 FRIENDS FRIENDS
참 여 작 가 이슬로
일 시 2023. 3. 10 - 4. 23
문 의 양유진 E-mail : carinofficial@naver.com
051. 747. 930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길 65 번길 154

2. 전시 내용

카린은 2023 년 첫 개인전으로 이슬로 작가의 [FRIENDS FRIENDS] 展 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서로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의 시리즈와 작가와 그녀를 둘러싼 친구와의 관계를 다루는 신작 40 여 점을 선보인다. 이슬로의 작품은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여러 관계에 주목한다. 단, 그 관계의 대상을 인물로 국한하지 않고 시간이나 감정 등의 추상적인 범위와 함께 사물 혹은 자기 자신과 같은 영역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 이슬로의 작업 세계가 가지는 특징이다. 작가는 지난 전시들에서 줄곧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관계들을 조명해왔다. 2022 년 개인전 <차이로진 (天真爛漫)>에서는 작가의 어린 시절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한 현재 자신의 관심과 취향을, 그리고 이후 진행되었던 <AMPERSAND>에서는 작가와 자신(개인)간의 관계성 혹은 타인이나 사회라는 프레임을 통해 규정되는 개인과 본성에 의해 정의되는 개인 간의 관계 혹은 균형에 관해 이야기해 왔다.

이번 전시의 제목인 <프렌즈 프렌즈(FRIENDS FRIENDS)>는 작가의 대표적인 연작의 타이틀이기도 하다. 한 화면에 두 대상이 서로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주로 그려지는 시리즈로, 이 두 대상 간의 관계와 그 사이의 균형을 주제로 하는 작업이다. 주로 하나는 작가, 하나는 다른 무엇이며 이것은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인물이 되기도 하지만, 시간이나 사건, 감정과 같이 그 영역이 광범위하다. 이번 전시의 주제를 프렌즈 프렌즈로 설정한 이유는 직전 전시가 작가와 개인 간의 유대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작가와 그녀를 둘러싼 친구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인물이 대표적이지만 그 외 다양한 대상과도 우애를 다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특히 전시라는 플랫폼의 특성상 작품을 관람하는 관람객과의 관계도 이번 전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



Friends Friends 11, 60.6 x 72.7 cm, Acrylic on canvas, 2023



Friends Friends 10, 60.6 x 72.7 cm, Acrylic on canvas,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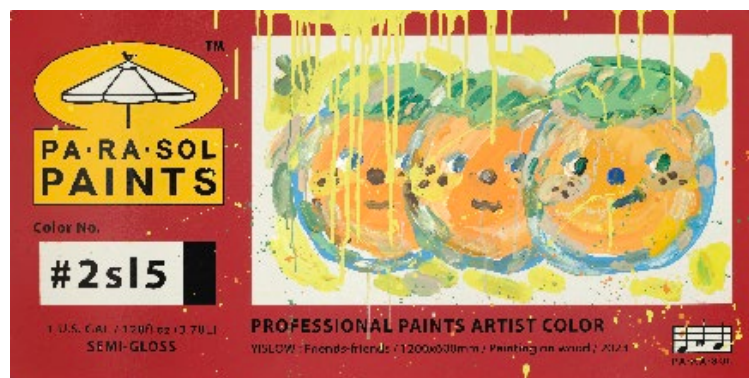
작가는 지난 전시에서부터 자신을 대변해 작품 속에서 서사를 이끌어가는 존재인 로(LO)를 등장시켰다. 로는 작가명인 '이슬로'에서 작가의 본명을 제외하고 남은 단어이자 개념이다. 로는 '아무것도 아니라서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유일한 성질 아래 다양한 형태로 작품에서 작용한다. 로가 작가와 동일 인물인지에 대한 답변을 미리 하자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 로와 작가 간의 관계는 무엇이라 정의할 수 없고 경계 없이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로는 작품 안에서 작가와 유대하며, 정의할 수 없기에 자유로이 확장하고 무한히 탈바꿈하는 작가와 작품의 특징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FRIENDS FRIENDS> 전시에 출품되는 이슬로 작가의 작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은 단연 'LO is Everything' 연작이다. 본 작업은 그림과 문자가 한 화면에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화면에 등장하는 것은 모두 로다.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로의 성질 덕분에 무려 26 개의 다른 모습을 가진 로가 탄생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작가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작가가 관계를 맺어 온 외부적인 요소를 이미지로 상징했다. 특히 각각의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가진 이슬로만의 심상을 시각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관람객은 해당 단어에서부터 시작된 각자의 영감과 이미지를 작가의 작품과 비교해서 볼 수도 있다. 관람객을 전시와 작품에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는 것 또한 작가의 작업과 이번 전시가 가지는 특징이다.

또한 작가는 자신과 타인, 특히 친구와의 관계를 더욱 조명하기 위해 실제로 본인이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과의 공동 작업을 이번 전시에 포함했다.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료이자 친구인 작가 275C, 김건주, 드로잉메리와 영상, 무대, 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아트디렉터로 활동 중인 김지원, 움직이는 그림을 그리고 만들며 브랜드 톨라톨라해프닝을 운영중인 강희은, 그리고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음악을 만드는 프로젝트 그룹 피그프로그(PIGFROG)의 멤버 아티스트 오존(O3ohn)과 주니(JOONIE)가 바로 그들이다. 이슬로는 이 여섯명(팀)과 각각 따로 또 같이 작업한 공동 작업을 통해 친구라는 관계 안에서 보이는 다양성과 균형을 색다르게 선보이고자 한다.



YISLOW, PIGFROG, Our Little Train 1



YISLOW, 275C PARA.SOL PAINTS #2s15 A

<전시장 전경>

